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치원 가기 전부터 자기 옷을 스스로 고르게 하고, 스스로 입게 한다. 부모들은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며 아이가 하도록 기다려준다. 아이인데도 자기 방 정리는 기본이다. 놀고 난 뒤 자기 장난감 정리하는 것부터 철저히 가르친다. 또한 4살 아이들에게 살아남기 수영도 가르친다. 네덜란드 아이들은 옷을 입고 수영하는 법,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건디느냐 생존 수영도 다 배울 정도다. 어디 그뿐인가, 4살 아이들은 개미 시장에 나와 부모와 함께 자기가 쓰던 물건을 팔아보며 돈이 어떤 것인지도 배우게 한다. 어릴 때부터 경제개념도 스스로 배우게 할 정도다. 여기에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길들인다. 어릴 때부터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한다. 오후 8시 이후에는 TV를 못 보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책을 읽고 잠을 자게 습관을 들인다. 유학 시절, 동네 네덜란드 학부모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다가, 아이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 깨우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에 네덜란드 부모들은 하나같이 “왜 아이를 네가 깨우냐”, “그냥 알아서 일어나게 놔 두라”는 것이다. 네덜란드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여서, 본인들도 출근 준비하기 바쁘다며, 아이가 안 일어나면 그대로 두고 출근한다는 것이었다. 아

이가 일어나 집안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다음부터 지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 한국 엄마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 말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네덜란드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1, 2학년에만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3학년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학교에 가도록 한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람불고 눈이 와도 자전거 타고 혼자서 학교 가는 아이들이 정말 대다수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겨울에 정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추운 날이면 필자는 종종 아들들을 차로 데려다주곤 했다. 그런데 우리 옆집에 살던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아이는 그 눈비를 맞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오후에 그 부모를 만나서 물어봤다 “집에 있던데, 오늘같이 날씨가 안 좋은 날에도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지 않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나는 모처럼 쉬는 날이고, 딸이 혼자 학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내가 차로 데려다줘야 하는 거냐”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 이처럼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작은 생활 습관부터 학교 가는 것까지 하나하나 스스로 하도록 인내하며 독하게 교육한다.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 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학교 끝나고

Zelfstang



Doen

스스로
한다

밖에서 노는 것, 친구와 약속 못 잡게 하는 것, 인터넷, TV 못 보기 등을 일정 기간 중지시키며 아이들을 양육한다. 그러면 대다수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른다. 최근 몇 년 전, 우리 둘째 아들 친구들이 한국에 방문해 우리 집에서 3주 동안 머문 적이 있었다. 키가 190cm가 넘는 청소년들이었다. 많은 지인이 “외국인 아이들이 집에 같이 있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곤 했다. 그런데 내 대답은 정반대였다. 네덜란드 두 청소년(단, 헤르벤)은 방학인데도 늦잠을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 빵을 먹고, 설거지를 해놓는다면, 우리집 청소는 물론, 내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빨래까지 잘 걸어 개어놓았고, 밖에서 함께 외식이라도 하면 식탁 앞에 어김없이 밥값을 미리 내어놓을 정도였다. 정말 내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앞가림을 잘해주었다. 이 청소년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또다시 한국을 방문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난 언제나 네덜란드 우리 아들 친구들을 환영한다. 네덜란드 청년들은 18세가 되면 대부분 부모 곁을 떠나 정말로 독립하며 홀로서기 한다. 네덜란드는 청년 니트족 비율이 OECD 평균 16%인 것에 비하면, 7%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청년 실업자가 그만큼 아주 적다는 이야기다. 왜 그럴까? 물론 12세 조기 진로 교육 결정이 우선된

것지만 여기에 어릴 때부터 스스로 교육, 경제교육을 받은 덕분에, 청년이 되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 사는 필자의 큰아이가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해, 둘째 대학생 동생이 집에 머무를 것을 보고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엄마 곁에 붙어사냐고 면박을 준 적이 있다. 네덜란드에서 혼자 독립해 사는 큰아이 눈으로는 20대 청년 동생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큰아이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여동생에게도 너도 18살이 되면 집을 나가라고 경고장을 날린 적이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교육받은 덕분에 필자의 세 아이는 대학생인 늦둥이까지 벌써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한국인 부모여서 네덜란드 부모처럼 아이들을 독하고 강하게 교육하진 못했지만, 친구들을 보고 자란 덕분인지, 세 자녀 모두 독립심이 강하다. 부모의 간섭은 지금도 사양한다. 아이들이 일찍, 홀로, 스스로 하도록 교육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 네덜란드 부모에게 양육 방법에 대해 너무 독하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다. 이때 네덜란드 지인이 한 말이 있다. “너도 자녀를 사랑하지? 나도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강하게 키우는 거야.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 험한 세상을 더 잘 살아가도록 말아야.”